

韓國大學, 이래도 좋은가

李 明 賢

(서울大 哲學科)

다 아는 바와 같이, 한국에 있어서 오늘과 같은 서양식 대학교육의 첫 모형은 경성제국대학에서 비롯하였다. 그런데 경성제국대학은 독일 대학의 모형을 본떠 만든 일본식 대학이었다. 해방후 미군정 당국의 영향 아래 경성제국대학은 미국 주립대학의 모형을 본떠 국립 서울대학교로 변신하였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일본 식민지시대의 사립 전문학교였던 보성전문, 연희전문, 이화여자전문, 숙명여자전문 등도 미국 주립대학 모형을 본떠서 오늘의 고려대학교, 연세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로 탄생하였다. 그리고 그 이후 나타난 대학들은 모두 이미 만들어진 대학의 모형에 따라 조직되었다. 이리하여 한국 땅 위에는 한결같이 미국 주립대학을 본뜬 單一模型의 대학들이 탄생하게 되었다.

그러나 한국 대학의 속을 들여다 보면 미국 주립대학과는 꽤나 거리가 멀다. 전공영역별로 단과대학이 구성되고 학점제와 학년제 그리고 교수를 전공영역별 학과로 세분하여 조교수·부교수·정교수 등의 직위로 나는 교수직제가 아마도 미국 주립대학에서 본뜬 중요한 골격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중요한 차이점을 하나만 들면, 학부학생을 입학 때부터 학과별로 모집하여 4년 동안 한 학과에 묶어두는 제도는 미국식이라기보다는 일본식이라고 말해야 옳다.

다 아는 바와 같이, 미국의 주립대학 모형은 미국 대학 모형의 원조라 볼 수 없다. 애당초 미국의 대학은 유럽 대학의 모형에 기반을 두고 만들어진 사립대학 모형이 그 전형이라 할 수 있다. 이른바 '아이비리그 학교' (Ivy League Schools)라고 불리우는 하버드, 프린스턴, 브라운 등과 같은 9개 대학이 바로 미국식 대학의 전형이라 볼 수 있다. 이러한 이른바 '전형적 미국식 대학'의 학부 학생은 입학부터 졸업까지 학과에 소속되지 않는다. 이것이 미국식 대학교육에 있어서 우리가 눈여겨 보지 않는 점이다. 뿐만 아니라 아이비리그 대학과 같은 전형적 미국식 대학은 미국 주립대학에서와 같이 전문영역별 단과대학으로 나뉘어 있지 않다. 아이비리그와 같은 대학 모형에서 學部教育이 지향하는 것은 순수학문과 연관된 教養教育과 순수학문 연구를 위한 土壘教育이기 때문에 대학 졸업후 각종의 직장에서 필요한 인력 공급을 교육목표로 삼는 주립대학 학부교육의 조직과는 다를 수밖에 없다. 주립대학은 애초의 설립목적이 각 주가 필요로 하는 농업기술자와 토목기술자 등을 양성하기 위해 실제적인 현장교육에 그 초점을 두었다. 따라서 실제 산업인력의 양성을 위한 각종의 단과대학들로 조직되었다.

좀 지루하지만 널리 알려진 이런 이야기를 부연하는 까닭은 오늘날 우리 대학의 正體性을 다시 한번 검토하는 실마리로 삼기 위해서이다. 오늘 한국 대학의 당면과제를 나는 '大學의 正體性 危機'라는 말로 표현하고 싶다. 쉽게 말해서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 대학인가?" 이 물음에 대해 적절한 대답을 마련하는 일이 오늘의 한국 대학에 던져진 과제라고 생각한다. 앞서 지적한 대로 지금 이 땅에는 오직 하나의 대학 모형만이 존재한다. 일본식으로 변형된 미국 주립대학 모형이 劃一的으로 한국의 대학을 支配하고 있는 것이다. 국립과 사립 가릴 것 없이 하나의 잣대로 전국의 대학이 교육부의 嚴命에 의해 통제되고 있다. 입학과 졸업, 등록금, 교과과정, 학생정원, 교수의 직제 등 무엇 하나 정부의 획일적 통제의 밖에 놓여 있는 것이 없다. 더욱 놀라운 것은 사립 학교에 대한 재정 지원을 거의 못하는 상황 아래서 등록금 책정을 비롯한 학교 운영의 세부 사항까지 통제하는 것은 私學의 存在理由 자체를 의심스럽게 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제 우리는 根本的 물음을 提起해야 한다. 지금 우리 대학의 모습은 그 무슨 필연성이라도 있는 것일까? 무슨 목적을 위해 요 모양으로 꼭 짜여져 있어야 하며, 요 꼴로 운영되어야 하는가? 인간은 因襲의 노예가 되기 쉽다. 어쩌다가 한번 굳어 버려 既成의 것이 되고 나면 좀처럼 그것으로부터 탈출하기가 어렵다. 기존의 것에 그 무슨 필연성이라도 있는 듯이 그것을 신성화하며 불가항력의 것으로 여긴다. 그리고는 그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을 반역자·이단자·왜방꾼으로 치부해 버린다. 이것은 사람들이 흔히 빠지기 쉬운 삶의 관성의 함정이다. 그러나 지금은 예사로운 때가 아니다. 創造的 決斷이 필요한 때이다. 어제의 낡은 껍질을 벗어버리고 역사의 새 몸짓을 해야 할 때이다. 그렇지 못할 때 우리의 역사는 화석화되고 말 것이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아주 근본적인 물음을 묻고, 거기에 적절한 대답과 실천적 처방을 마련하는 일이다. 오늘 우리의 대학들은 무엇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가? 목적과 교육적 장치들을 재점검해야 한다. 이 땅의 대학들이 모두 같은 목표를 위해 같은 일을 할 수 있는가? 이 물음에 대해 가장 먼저 지적되어야 할 것이 있다. 오늘의 대학은 서양의 대학이 한때 그랬던 것처럼 순수 학문 연구에 몰두하는 학자양성이나 품위있는 교양인의 양성에만 몰두할 수는 없다. 그렇다고 공장과 산업체에 필요한 산업인력 양성만을 겨냥할 수도 없다. 현대사회는 복잡하며 다원적이다. 여러 가지 사회적 수요 앞에 대학은 서 있다.

모든 제도는 歷史의 產物이다. 역사의 수요에 알맞은 制度의 供給이 모든 시대의 과제이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 21세기 새 운명의 도래를 말한다. 그리고 그에 대한 대처를 염려한다. 오늘의 敎育이 바로 내일의 社會 需要에 대한 공급계획을 올바르게 수립할 때, 우리의 후손들이 21세기를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 요청되는 것은 大學 模型의 多元化이다. 그리고 다원적 모형에 따른 여러 類型의 대학의 構造化이다. 입학 전형 절차에서부터 교과과정 그리고 대학운영 방식에 이르기까지 多樣化해야 한다.

우리의 생각과 행동은 지금까지 너무나 劃一的 平等主義에 익숙해 있다. 어느 한 학교의 모형에 따라 일체화 자기의 모양을 바꾸는 획일적 모방에 너무 민감하다. 한마디로 單純組織을 강요하는 社會的 體質에 잘 길들여져 있다. 만일 私學의 존재이유가 있다면 거기에 알맞은 現實的 存在樣式이 실현되어야 한다. 지금 이 땅의 교육정책 담당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까지의 삶의 관성으로부터 發想法을 해방시키는 일이다. ■